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2월 19일(주일) 제1430호



온누리교회 긴급구호 선발대(왼쪽부터 강찬욱 집사, 성광제 장로, 신원석 사무국장, 김동휘 형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선발대 파견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역 정탐 및 긴급구호
긴급구호 패키지 100여 개 전달, 향후 지원 계획 모색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선발대 4명이
지난 2월 16일(목) 튀르키예-시리아 대
지진 피해 지역으로 떠났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선발대는 NGO 더멋진세상
신원석 사무국장과 긴급구호팀원 3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선발대는 튀르
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동부 아다나 지역
으로 이동한 다음 긴급구호를 할 계획이
다.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난방용품과 텐
트, 담요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패키지
100여 개를 동남부교회연합과 협력해서

지원한다. 또 지진 피해 지역 상황을 상
세하게 살펴보고, 향후 긴급구호 계획을
모색한다. 선발대는 정탐 및 긴급구호를
마치고 2월 22일(수) 귀국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와
긴급구호팀원 10여 명도 이달 중으로 출
국해 난방용 품목, 식량, 방역물품을 배포
하는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2월 11일(토)과 12
일(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
역 긴급구호를 위해 2월 비전헌금을 봉
헌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2월 비전헌

금으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
역에서 긴급구호를 전개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기도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튀르키예
와 시리아 국민,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더멋진세상 우리은행

1005-902-984765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당회

일시: 2023년 2/25(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안건: 2022년 결산보고
평남노회 청원

제직회

일시: 2023년 2/26(일)
2부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모든 제직
안건: 평남노회 청원
2022년 결산보고

공동의회

일시: 2023년 2/26(일)
3부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2022년 결산보고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2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말씀 묵상, 작은 실천

온우리가 함께 창조질서를 회복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된다. 40일 동안 말씀
을 묵상하고,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 올해는 특별히 모든 성
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 실천’과 성
도 개인이 선택하는 ‘개인 실천’으로 나
뉘어 진행된다<관련기사6면>.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 주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에 해당하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다 함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 ‘미사용
공간 소등하기’, ‘컴퓨터에 불필요한 데
이터 삭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분리수거 잘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
일터에서 내 컵 사용하기’, ‘이면지 활용

하기’, ‘종이영수증 대신 온라인 명세서
받기’, ‘음식 남기지 않기’, ‘일터 청소
및 정리하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
페인 참여하기’, ‘각종 중독의 심각성 인
지 및 대응하기’, ‘헌혈하기’, ‘차별금지
법 제대로 알기’ 등에 참여하면 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
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는 ‘인증사진’과
‘한 줄 소감’을 채리앱(희망나눔)에서
모집한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채리 앱을 설치하고, ‘MY단체’에 온누리
교회를 등록한 다음 ‘캠페인’란에서 ‘사
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
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를 선택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채리앱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개강예배

온누리공동체가 상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2월 23일(목)
가정사역공동체, 서빙고공동체를 시작으로 3월 12일(주일)
평택온누리교회까지 이어진다(표 참조).

올해 상반기에도 풍성한 행사가 이어진다. 오는 3월 1일에는
순장영성수련회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 ‘
영혼을 돌보는 순장’을 주제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온누
리교회 순장, 다락방장, 장로 등 리더십 2천여 명 참석할 예
정이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 심야예배, 8일과 9일
부활주일, 5월 6일과 7일 어린이주일, 13일과 14일 어버이주
일, 17일부터 19일까지 회복축제가 열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3년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방법)	시간
2월 23일(목)	서빙고	두란노홀	18:00
2월 23일(목)	가정사역	한동홀	18:00
2월 24일(금)	양천	비전홀	18:00
2월 24일(금)	노원	시온홀	18:00
2월 28일(화)	특별한초대	두란노홀	18:00
2월 28일(화)	강촌	한동홀	18:00
3월 2일(목)	이촌	두란노홀	18:00
3월 2일(목)	서대문	한동홀	18:00
3월 3일(금)	한강	두란노홀	18:00
3월 3일(금)	OCC	한동홀	18:00
3월 3일(금)	여의도	비전홀	18:00
3월 3일(금)	영등포구로	시온홀	18:00
3월 4일(토)	신용산	비전홀	14:00
3월 4일(토)	일산	일산 비전센터	17:00
3월 5일(일)	고양은평	팀수양관	17:00
3월 7일(화)	충주로	두란노홀	18:00
3월 7일(화)	이수	한동홀	18:00
3월 7일(화)	용산	비전홀	18:00
3월 7일(화)	김포	시온홀	18:00
3월 7일(화)	성북	온라인(Zoom)	20:00
3월 9일(목)	강서	두란노홀	18:00
3월 9일(목)	성동광진	한동홀	18:00
3월 9일(목)	천왕사역	비전홀	18:00
3월 10일(금)	관악금천	두란노홀	18:00
3월 10일(금)	마포	한동홀	18:00
3월 10일(금)	동작	비전홀	18:00
3월 10일(금)	동대문중앙	시온홀	18:00
3월 10일(금)	광명	하안장로교회	19:00
3월 11일(토)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7:00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방법)	시 간
3월 2일(목)	강남C	화평홀	19:00
3월 3일(금)	서초D	화평홀	19:30
3월 3일(금)	Point5	온유홀	20:00
3월 3일(금)	양재A	드림홀	20:00
3월 4일(토)	분당B	광림기도원	17:00
3월 4일(토)	도곡	화평홀	18:00
3월 4일(토)	송파B	드림홀	18:00
3월 5일(주일)	푸른누리	숙명여고 강당	15:30
3월 5일(주일)	하모니	두란노홀	16:30
3월 7일(화)	과천의왕	기쁨홀	19:30
3월 7일(화)	강남D	온유홀	19:30
3월 7일(화)	분당A	드림홀	19:30
3월 7일(화)	강남B	화평홀	20:00
3월 9일(목)	경기A	기쁨홀	19:30
3월 9일(목)	양재B	드림홀	19:30
3월 9일(목)	강남A	화평홀	19:30
3월 10일(금)	서초C	드림홀	19:00
3월 10일(금)	강남E	온유홀	19:30
3월 10일(금)	송파A	화평홀	19:30
3월 11일(토)	서초A	드림홀	18:00
3월 11일(토)	서초B	화평홀	19:00
방학없음	Bridge33+	-	-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3월 10일(금)	부천 연합공동체	본당	20:00
3월 7일(화)	수원 서누리공동체	본당	20:00
3월 9일(목)	수원 동누리공동체	본당	20:00
3월 10일(금)	수원 북누리공동체	본당	20:00
3월 11일(토)	수원 남누리공동체	본당	16:00
3월 3일(금)	대전 동누리공동체	본당	19:30
3월 3일(금)	대전 북누리공동체	세종교육관	19:30
3월 10일(금)	대전 남누리공동체	본당	19:30
3월 10일(금)	대전 서누리공동체	비전홀	19:30
3월 8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19:30
3월 12일(일)	평택 연합	본당	16:00
3월 3일(금)	인천 연합	본당	20:00
3월 10일(금)	강릉 연합	본당	20:00
3월 5일(주일)	양지 연합	박모세홀	14:00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강자로 여깁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약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강자와 약자를 구분 짓는 기준 자체가 대부분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약함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강자로 비치기도 하고, 약자로 비치기도 합니다. 스스로 강자로 여기는 사람은 약함을 감추는 데 성공한 것이고, 스스로 약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약함을 감추는 데 실패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약자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을 강자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판단에 따라서 약자로 규정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며 자신이 강자임을 확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규정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로마교회와 고린도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갈등은 강함과 약함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해서 생겼습니다. 로마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규정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도 갈등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의 강함과 약함 '음식 문제'

바울은 로마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거나 유혹에 쉽게 빠지는 미성숙한 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약함'은 특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예민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 문제 없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영역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약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양심의 자유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부분을 자신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을 '약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강함과 약

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당시 대다수 사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한 표현일뿐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교훈한 것을 보면 그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교회에서 믿음이 강함과 약함을 구분하는 주제가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음식 문제입니다. 로마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 숭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라며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로마교회 성도 대부분 이교도였고, 이교도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기에 우상숭배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구약의 정결법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약 서신 전체에서 보면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자체도 우상이 먹은 것도 아니고, 실제 우상이 영향력을 준 것도 아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먹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은 종말적이기에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리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이기에 꺼림칙해서 "나는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나는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을 끊겠다"는 이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규정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반면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들을 엄신여겼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엄신여겼습니다. 로마교회 대다수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매우 공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

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1~3절).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먹으면 되고,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판단하는 논쟁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등이 생길 게 아니라 각자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가 믿음의 강약이 될 수 없습니다. 각자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은 비본질적인 것은 각자 신앙 양심의 자유에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13절).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불편하다면 그를 위해서 먹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먹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운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고전 8:8-9).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법이 더는 적용되지 않기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롬 14:14).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되므로 확신하고 부정하지 않다고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딤후 4:3-4).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꺼림칙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사랑이 더 큰 원리입니다.”

하게 여기는 가족이 있다면 상심하는 그 영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부정하다고 여기고, 정결하다고 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초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강약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입니다. 개인이 꺼림칙해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판단하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의 신앙 자유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믿음이 강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강약을 판단하는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강함과 약함
‘절기 문제’

둘째, 절기 문제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구약의 절기들이 있었기에 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 등 여러 규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습관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절기의 중요성 때문에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기 습관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믿음이 좋고, 무엇이 더 믿음이 강한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5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명하거나 금지한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확신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토요일에도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전통이 천 년 이상 내려왔습니다. 원래 인류 역사에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로마 제국에 휴일을 선포한 것이 휴일의 등장입니다. 그전에 종들은 항상 일하고, 주인들은 항상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초기 유대인들은 토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식사부터 토요일 저녁 식사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지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깨뜨리신 역사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역사에서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저녁에 모이느냐, 새벽에 모이느냐를 논쟁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심야와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선호했고, 이방인들은 일요일 새벽을 선호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안 모이는 시간입니다.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없었던 당시에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공휴일이 지정되고 다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5일 근무제 등 공휴일이 다양화되고, 나뉘면서 어떤 사람은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이슬람권은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모든 교회가 금요일에 모입니다. 바라카 원전이 있는 곳은 목요일이 공휴일입니다. 목요일이 쉬는 날이기에

목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요일만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인간의 습관일 뿐입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일주일에 하루, 공휴일, 쉬는 날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하면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토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린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가’입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까”(6-9절).

‘주를 위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정한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면 주의 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예배해야 주의 날이 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주의 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가?”

둘째, ‘사랑을 따라 행하는가’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15-16절).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고전 8:1).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고전 8:12-13).

분명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지식은 교만이지만,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사랑이 있다면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사랑이 더 큰 원리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먹거나 먹지 않거나 이날이나 저 날이나 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회학자로서 극단적 페미니즘을 찬성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의 진리와 자신의 사회학적 주장 사이의 충돌을 매일매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돕는 배필이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부부의 관계를 이루라는 성경과 전혀 상반되는 학문적 주장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정직하려면 신앙과 학문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세계관 속에서 성장했다. 그리스도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지만, 진선미의 기준은 여전히 유교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다. 기독교와 유교 각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은 더욱 없었던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기독교 진선미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

다. 하지만 그 다음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익숙했던 이전 삶의 양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되면서 비로소 내 안에 존재하는 혼합된 세계관의 정체와 그 뿌리를 짚어 볼 수 있었다. 혼합된 세계관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는 이중적 삶을 살아왔다.

혼합된 세계관에 대한 자각과 반성만으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오래 의존해왔던 이전의 세계관이 나에게 너무 익숙해서 내 삶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다신론자, 무신론자들은 절대적인 기준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서로의 이익이 부딪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분쟁의 해결은 힘을 가진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상황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서 각각 검사와 판사를 임명했고, 독일의 전범들은

인 범죄로 규정하고 이것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전범들을 처벌했다. 이것이 상대주의자들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세계관은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의 문제이다. 가장 중심되는 것이 진(참)과 거짓, 선(선함과 악함), 미(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기준이며, 기독교 세계관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계시하는 성경 말씀에서 찾는다.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은 흐트러지고 뒤섞인 기준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일치시켜가는 과정이다. 명제적인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절대적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인격적 기준은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함당하며,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룬 선한 진리가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행해지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성경은 절대적 기준들을 명제적으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기준임을 믿고, 말씀에 비취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단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 이번 선택이 잘못되었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성령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고칠 기회를 주신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영적 전쟁이며,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기준임을 믿고

말씀에 비취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과정에서 ‘견고한 진’으로 작용했다.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에 사도 바울마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은 철학이나 윤리학 등의 인문학적 지식을 섭취해서 유식해지기 위한 공부라 아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상대를 분별하기 위한 과정이며, 상대의 공격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나의 가정과 내가 받아 온 교육 등 어떤 시기, 어떤 경로로, 어떤 세계관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준다.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범신론자,

변호인을 내세워 자기를 방어했다. 검사들은 이들을 반평화적 범죄 공모, 침략전쟁의 계획과 실행, 전쟁법 위반, 반인륜적 범죄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각국의 법률이 다르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죄형법정주의)”라는 근본적이면서 상대주의적인 질문으로 검사들을 괴롭혔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규범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국가 기반의 법률체계로 이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상대주의 법정에서는 힘을 가진 전승국들이 침략전쟁을 가장 악질적

특별기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

사람들이 만든 율법이나 규정,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해야 한다.

최근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논의가 늘고 있다. 이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적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과거의 성공 경험을 지금 젊은 세대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꼰대와 대화 나누기를 주저하거나 피한다. 과거의 성공이 멋졌을지 모르나 현재는 감흥이 없고, 실재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른다. 지금

혹시 과거의 추억만으로 살고 있거나 그 추억에 기대서 교회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 ‘영적 꼰대’에서 벗어나 ‘영적 신세대’가 되어야 한다.

교회 리더십은 더욱 심각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한다. R.T. 캔달 목사님은 책 <내일의 기름 부음>에서 “신성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지 못하여 어제의 사람이 된 자들은 대부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사람이 되었지만, 타고난 재주나 은사, 성격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나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의 실패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열심과 봉사의 은혜가 착각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제의 사람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제

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다.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나 자신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회복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회복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이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으로 회개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마 4:17). 진리이신 예수님의 선포는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령님과 함께 성도가 이 땅에서 이뤄야 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시대에 맞춰 보여주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지금 삶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맞추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기도와 삶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 되어서 자녀와 이웃과 나라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아내기를 소망한다.

이상준 장로
(강남D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크리스천의 자녀양육

청소년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



민성원 박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전문 자문위원, 미국
공인 심리상담전문가
(NCC))

청소년기는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 불균형과 부조화적 특징을 나타낸다. 어느 발달 시기보다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미국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가 청소년 시기였을 때 부모의 역할이 가장 어렵고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부모들은 지나친 학력 위주의 사회적 풍토로 인해 자녀의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서구보다 3~5배 정도 높고 양육에 대한 죄책감 수준도 높다는 보고들이 있다.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국 부모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예상할 수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아이로 인한 요인이라고 믿지만, 연구자들은 아이의 요인과 부모로부터 발생한 혹은 관련 요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자녀일 경우, 자녀의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 정서적 동요, 또래 관계로 인한 갈등 및 소외, 비행, 중독 등과 관련된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또 만성적인 신체적 질병이나 기타 정서·사회 발달적 어려움을 수반한 자녀의 양육인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다. 최근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부모들의 특성인데, 이들의 특성이 청소년 자녀를 양육할 때 스트레스를 증폭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를 양육할 때 스트레스를 증폭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년기 부모의 생애주기적 특성이다. 대부분 청소년 부모들은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리는 중년기에 돌입 혹은 지나가는 시기에 있다. 중년기는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아서 부부관계 갈등의 심화 및 위기 수준이 높고, 위궤양, 고혈압, 심장병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병한다. 갱년기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 생리적 변화와 신경과민, 공허,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변화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따른 흡연, 알코올, 소비 등의 의존도가 높아져 중독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40~60대 남성의 경우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고한다. 이외에도 중년기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과 조부모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상실, 심리적으로 밀착된 아동기에 비해 독립적 욕구를 추구하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상실감과 거절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기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중년기 부모는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신체, 심리, 사회적 역할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정서적 위기감과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생애주기 위기단계의 자연적인 특성들이 맞물림에 따라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내재적 특성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부모가 우울 증상이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혹은 성장기에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녀와의 심리적 불편감이 높아서 자녀와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 강압·통제적 혹은 수동적인 양육 행동으로 이어진다. 결국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를 가중하게 한다.

셋째,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생활 스트레스는 가족, 직장,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부부관계의 친밀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조력, 사회적 지지 그룹이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주요 요인들로 작용한다.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모-청소년 자녀 사이의 정서적 단절뿐 아니라 부정적 양육 행동으로 이어져 아이의 문제행동 수위를 높이는 역기능적 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모든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스트레스 요인을 알아차리고, 스트레스를 관리 및 조절하는 건강한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선순환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기 자녀와 제2의 사춘기를 경험하는 부모 모두가 위기의 여정을 딛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대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사 42:6, 사 43:4).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청소년기 자녀와 제2의 사춘기를 경험하는
부모가 위기의 여정을 딛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2월 14~15일 본문



1.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드려야 해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이 급하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삼상 13:11)

2.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삼상 13:14)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패션 집회 ‘Follow The Way’ 참가자 소감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겨울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 ‘Follow The Way’ 둘째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아무런 값없이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찾아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십

니다! 나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제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패션 집회 둘째 날 저녁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느꼈습니다. 죄인인 저를 기다려 주시고, 찾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걸맞은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집으로 돌

아가는 차 안에서 태블릿에 있던 게임과 유튜브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들을 부모님께 반납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이예검 학생
(대전 파워웨이브)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1. 성도들의 실천기 2. 친환경 기업 3. 친환경 교회

수익도 창출하고, 친환경 경영도 하고

강종도 집사가 운영하는 친환경 기업 (주)이앤아이월드

‘친환경 기업’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낯설다.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각종 비용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감안하고 친환경 경영을 고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을 포기하고 친환경만 고수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어렵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친환경 기업인 척만 하거나 법에서 정한 만큼만 친환경 경영을 한다. 그런데 강종도 집사(OCC공동체)가 운영하는 광고기획사 (주)이앤아이월드는 다르다. 수익도 창출하고, 친환경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강종도 집사(주)이앤아이월드 대표)가 e-book 제작 툴 'NEXBOOK'을 시연하고 있다.

이면지 사용 등 종이를 아껴 쓰는 일은 대중적인 환경보호 실천 방법의 하나다. A4용지 1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10ℓ가 필요하고, 탄소 2.88g이 발생한다. 30년 자란 나무 한 그루를 베면 A4용지 네 상자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이 189.2kg이다. 전 세계 1인당 평균 사용량인 56.2kg과 비교하면 약 3배 넘는 양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를 나무로 계산하면 연간 2억4천만 그루나 된다.

종이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실천이 다양하다. 이면지 사용, 온라인, 모바일 영수증 사용하기, 종이 고지서를 온라인 고지서로 받기, 친환경 잉크 사용하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강종도 집사는 2007년부터 친환경 기업 (주)이앤아이월드에 몸담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book을 제작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사실 강종도 집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환경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기업을 경영하고, 친환경을 주제로 인터뷰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e-book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05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책과 홍보물, 카탈로그 등을 제작했는데 그것을 e-book으로 만들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e-book이라는 개념이 생소했고, 시장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출판물을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한 장씩 넘겨보는 e-book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인쇄출판물 광고기획사에서 e-book을 제작하는 일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출판물을 사진 파일로 만드는 데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니다.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e-book ‘제작 툴(tool)’이 필요할 것 같았다.

“e-book을 쉽고 편리하게 제작하는 툴이 필요했습니다.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e-book 제작 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종이책이 있는데 누가 PC로 책을 보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사가 잘 안됐습니다. 종이책을 인쇄해서 버는 돈을 거의 e-book 제작에 투자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미래는 e-book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과 을지로 골목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하며 혁명이 시작됐다. 이른바 스마트폰 혁명이다. 스마트폰 혁명이 시장조차 없었던 e-book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아이폰에는 e-book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e-book이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사용하던 e-book 제작 툴은 플래시 기반이었습니다. 몇 년을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플래시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안 나는 e-book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즈음 기존 대표님이 경영에 피로를 느끼고 저에게 회사를 인계 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이 e-book을 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변화는 더디고 천천히 일어났다. 대한민국 인쇄시장 1번지로 불리는 을지로 거리도 변하지 않았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을지로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떠올랐다.

“제가 을지로를 자주 갑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골목마다 버려진 인쇄물이 잔뜩 쌓여있는데 인쇄화학 약품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 물이 어디로 갈까?’로 시작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아끼라고 저에게 e-book 제작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아주 천천히 e-book 시장이 변하고 있다. 기존 인쇄시장의 저항, 소비자들의 더딘 인식변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주)이앤아이월드의 수익에 큰 변화가 생겼다. 교과서 출판사와 협력해 영어 전자교과서를 제작할 만큼 시장에서 인정 받고 있다. 전체 매출 중에서 e-book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강종도 집사와 (주)이앤아이월드를 안 좋게 평가하던 을지로 인쇄소에서도 e-book 제작 툴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종이 인쇄를 줄이고 일부는 e-

book으로 제작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보통 e-book 제작 툴을 만들었으면 일감을 독점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e-book 제작 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도 손님들이 e-book을 워낙 많이 찾으니까 저희 제작 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PDF나 이미지 파일을 HTML을 기반으로 한 e-book 제작하는 ‘NEXBOOK’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도 사진이나 글자가 깨지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e-book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벌목되는 나무의 40% 이상이 종이와 펄프 생산에 쓰인다.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연료, 화학약품, 물을 생각하면 종이를 아끼는 것이 곧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이다. 강종도 집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종이를 아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종이를 아예 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종이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어떨까요? 인쇄해야 한다면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친환경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 (주)이앤아이월드(ebook.co.kr)

2023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제안

- 미사용 공간 소등하기
- 컴퓨터(메일) 데이터 정리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분리수거 잘 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 일터에서 내 컵 만들기
- 이면지 활용하기
- 종이영수증 대신 온라인 명세서 받기
- 잔반 남기지 않기
- 헌혈하기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여하기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저에게 온누리교회는 천국입니다!”

발달장애인 이상일 형제의 삶 그리고 도전

정말 귀한 만남이 있다. 그 만남 뒤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발달장애인 이상일 형제(50세, 누리사랑부, S브릿지공동체)와의 만남이 그랬다. 그의 인생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샘솟고,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이상일 형제의 삶은 온누리교회를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비참하고 서럽고 괴롭던 삶이 온누리교회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덕분에 안정적인 일터와 편안한 보금자리가 생겼고,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꿈과 비전도 생겼다. “저에게 온누리교회는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이상일 형제를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만났다.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상일 형제는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온누리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봉제 기능사로 24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상일 형제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는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었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이상일 형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손재주가 정말 좋아서 어렵고 중요한 봉제 작업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각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넘쳐서 작업 분량이 남으면 늦게까지라도 맡은 일을 꼭 마무리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보호자, 안식처, 멘토

이상일 형제가 온누리교회를 만난 것은 1999년이다. 그의 나이 26살이었다. 이상일 형제의 삶은 가난과 무지, 복지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다. 그만큼 크고 높은 고난이 이어졌다. 이상일 형제는 부모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아버지 혼자 장애인 아들도 건사하고, 생계도 책임져야 했다. 가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이상일 형제는 아버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다. 봉제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이상일 형제가 봉제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직원들과 함께(사진 오른쪽).



공장에서 일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도 했다.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다.

“봉제공장, 새벽 신문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친구 짬에 빠져 가출도 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곳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지방의 중국집이었습니다.”

이상일 형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친구가 좋은 곳에 가자고 해서 집을 나왔다. 친구를 따라간 곳은 충남 온양에 있는 한 중국집이었다. 그곳에서 3~4년 동안 무일푼 노동을 착취당했다. 절대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돌아왔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봉제공장에 취직했다. 또래 친구들은 학교를 다녔지만, 이상일 형제는 그럴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1999년, 이상일 형제의 인생이 180도 바뀐 계기가 있었다. 바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다.

“그때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온누리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당시 이상일 형제가 살던 동네에서 잠깐 다녔었던 교회의 권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권유했다. 이상일 형제를 걱정하던 그 권사님이 그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주신해 준 것이다. 이상일 형제에게 온누리교회와의 만남은 천재일우(千載一遇,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 그 자체였다.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라는 든든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당시 누리사랑부에서 만난 박우형 장로님(구족화가)이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공장에서는 일을 빨리빨리 하라고 혼을 많이 내는데,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복지사님들도 정말 좋고,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도 좋은 분들입니다.”

믿음의 조력자들도 많이 만났다. 이상일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황했습니다. 교회와 회사에 아버지의 부고를 말씀드렸더니 장례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웠는데 그 외로움을 교회에서 종일 지내면서 달랬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도 얻었다. 영세한 빌라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에는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온누리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온누리교회와 온누리복지재단이 따뜻하게 채워줬다. 온누리교회가 이상일 형제의 보호자, 안식처, 멘토가 되어서 보살폈다.

“온누리교회에서 정말 좋은 시설과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처럼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줬습니다. 따뜻한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온누리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50세 늦깎이 대학생의 꿈

온누리교회와 온누리복지재단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이상일 형제의 생활이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열매도 있었다. 이상일 형제가 지난 2005년 장애인기능대회에서 금상(홈패션 부문)을 수상했다. 또 남을 돕는 일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상일 형제는 벌써 10년 가까이 월급 일부를 모아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잊고 있었고, 엄두도 내지 못하던 학업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시설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봤고, 야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진학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원장님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사회복지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상일 형제가 올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교에 합격했다. 요즘 이상일 형제에게는 곧 대학생이 된다는 기쁨이 가득하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는 50세 늦깎이 대학생이 된 이상일 형제에게 온소미 장학금(온누리복지재단 장학사업)을 수여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장애인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온누리교회는 천국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해준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모순된다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약 1:13)이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창 22:1)는 말씀이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니 성경이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글 성경에 번역된 ‘시험’이라는 단어의 문맥상 다양한 의미와 뜻이 있음을 살펴보면 된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서 말한 ‘시험’은 헬라어 원형 ‘페이라스모스’에서 유래된 말이다. ‘시험(test)’, ‘시련(trial)’, ‘유혹(temptation)’과 같은 다양한 의미다. 성경은 대략 이 세 종류의 시험을 다양하게 ‘시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세 종류의 시험을 포괄하는 의미인 ‘시련’, ‘고난’의 개념이다.

둘째, 야고보서 1장 13절에 표기된 ‘시험’은 ‘유혹’을 뜻한다. 유혹은 넘어지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해서 무너지거나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4절에서 “인간이 시험(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 4:1)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사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고 죄 가운데로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셋째, 창세기 말씀에서 ‘시험’은 유혹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test)’의 의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숙과 순종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시험대 위에 그를 올려놓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근원과 종류를 잘 파악해야 한다. 외부적 환경의 고난이든, 내적인 욕심이나 사탄이 주는 유혹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것은 유익한 시련이 될 수 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종류의 시험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쌓이면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성숙한 존

재가 된다”고 말한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삶이 성장하고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심리학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이론은 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삶의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새로운 창조적 삶을 선택하게 만들고, 성숙한 삶이 다시 우리 삶의 상처를 치

유해서 변화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이다.

지금도 많은 성도가 시험 가운데 있을 줄 안다. 부디 그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

2월 20일~26일

사무엘상 15:10~17:40



목상포인트 1:

순종에 있어서 인간적 시각으로 합리적이나, 비합리적이나를 따져서는 안 된다.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명령을 했느냐’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사무엘의 질책을 받고도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노라고 주장한다. 불순종하고 변명하는 사울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자.

▶사울은 승리를 자축하며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길갈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찾아온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탄하며 하신 말씀을 전한다.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전부 순종했다고 항변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과 탐심을 깨우치며 강하게 책망한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죽이고 떠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과 더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별해 기름 붓도록 명하신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외모가 출중하고 직업이 훌륭해도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신다.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기름 붓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자.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세울 만하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신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다윗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이후 공적으로 첫 사역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괴롭히는 사울을 음악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한다.

묵상포인트 3: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서 빛을 발한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무명의 소년이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며 담대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이 품은 용기와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그분 백성을 위해 용감히 나서

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묵상하자.

▶다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바뀐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그려진다. 골리앗의 압도적 키와 풍채가 묘사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이 들린다. 이 와중에 목동 다윗이 등장한다.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자 형 엘리압이 화를 낸다. 사울 역시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와 싸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했던 일을 간증한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을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자. ▶어떤 사람을 볼 때 용모와 키를 먼저 보기가 쉽다. 그러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봐야 한다. 외적 용모를 보고 사람을 재단해서 중요한 일을 그르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된다. “너는 할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함께하시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성균이와 가족을 위해서!

뇌출혈로 장애인이 된 성균이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린 이후 상황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성균이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8년 되었고 이제 고2가 됩니다. 여전히 걷지 못하고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연하검사(연하기능과 문제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지금껏 가장 좋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물과 모든 체형의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성균이는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운동과 학습능력이 우수한 편이었는데 기억력 장애로 책은 읽지만, 학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도, 씻을 수도, 먹을 수도,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뇌와 몸의 기능이 회복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성균이가 기쁘게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직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가문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두 동생이 예수님을 떠난 지 몇 년째입니다. 가족들의 구원과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이순여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마음

“가족이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모이면 불편하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누구보다 아끼고 기뻐하던 교회였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모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빌립보교회 성도들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특히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게 사이의 반목이 깊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해법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마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빌 2:1-2).

왜 그들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로 같은 마음이 안된 걸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기심’과 ‘허영’이라고 말씀한다(빌 2:3-4).

이기심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고, 허영은 나 자신을 한껏 부풀려서 포장하고 과장하는 마음이다. 한마디로 나의 자존심과 감정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전혀 문제가 없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독선적, 자아도취적인 마음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세상이 모두 나와 내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나에게 사람들이 집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던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빌 2:3)라고 권면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굴욕을 겪다’라는 단어와 ‘재갈을 물리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재갈을 물린 소를 생각해보자. 소는 절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주인이 소에게 굴욕적으로 재갈을 물렸기에 주인에 의해 통제된다. 바로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게 굴욕적인 환경을 허락하심으로써 ‘예수의 마음’(빌 2:5)을 역지로 품게 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다. 내 부모님은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다. 최근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다. 노년의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할머니 목에 호루라기를 걸어드렸는데, 할머니가 저녁 식사 내내 쉼 없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할머니를 부모님이 수발드는 모습을 내 딸들과 함께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가족예배를 드리며 손녀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다.

“어려서 받은 상처로 평생 어머니가 미웠는데, 이렇게 70이 다 되어서 대소변 갈아드리며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아드리게 됐다. 내가 죄

인이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어머니도 말씀하셨다.

“나도 평생을 미워했다. 그저 평안히 주무시다가 천국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대소변을 갈아드리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은혜를 주셨다. 이제야 미움의 전쟁을 그치게 됐다.”

가족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기심과 허영을 내려놓지 못해서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굴욕적인 사건을 허락하실 때 품게 되는 마음이다. 모두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풀리지 않던 가족 간의 관계가 풀리게 될 것이다.



이승민 목사
(여호수아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사이의 거짓말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로 신뢰할 수 있기에 결혼할 수 있었고, 서로 신뢰할 수 있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신뢰에 금이 간다면 부부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감추는 게 많은 관계로 변모될 것이다.

부부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것 중에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신뢰해야 하는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부부 관계는 솔직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쌓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간혹 하기도 한다.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쟁취하고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취미 생활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가 무척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 몇 달 치 월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물품이거나 가격을 떠나서 위험해 보이는 장비일 수도 있다.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구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있다. 부부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 그 장비를 사려고 하면 당연히 거부당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마음에 사고 싶은 충동이 계속되면 그 욕망을 꺾어 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인데 배우자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 예상되면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저리 둘러대면

서 재정을 모으고 어느 날 행동에 옮긴다. 숨겼던 행동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몰래 구입한 물건을 자연스럽게 감춘다. 물건만 감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일부도 감춘다. 마음 일부를 감추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부부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감추는 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숨기게 된다. 감추는 부분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틈타는 순간부터 이전과 같이 투명하고 진실한 관계라 말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배우자라는 어두운 분위기가 부부 사이에 들어앉게 될 수 있다.

거짓말의 이유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확대된 가족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불편한 분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부부는 두 사람만의 관계 범위에서 살지 않는다. 양가 부모 가족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 특별히 양가 부모님과 부부가 서로 불편함 없이 지내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섭섭한 말이 한두 번 오가고, 오해가 생길만한 행동이나 느낌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가득한 관계로 변할 수 있다.

시댁 부모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려오는 압력과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 상황이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가에서 밀려 들어오는 무리한 요구나 압력 등으로 인해 심신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간혹 건강하게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는 결혼한 자녀라

도 여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긴다. 요구할 것을 요구하면 자녀는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위치라고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다. 이 상황이 지속하면 부부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겨루기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처지가 된다. 남편의 부모에게서 쏟아지는 것들과 아내의 부모에게서 밀려오는 것들의 중간에서 치이는 상황이 된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든 상태가 된다.

이러한 갈등 관계가 지속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별일 아니라고 감추기도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가족으로 부터 건네받은 말들, 섭섭함, 서운한 마음을 굳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추는 게 계속해서 생기면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배우자 몰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투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부모에게서 받은 말들을 잘 여과하면서도 서로에게 투명하게 나누는 것이다. 어리석은 투명함이 아닌 지혜로운 투명함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가 견고하고 진실함을 유지할 때 간간이 밀려오는 양가의 부정적 압력과 무례한 요구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계속 숨기고 자신의 부모와 더 긴밀히 연결되고, 배우자에게 담을 쌓고, 거짓의

울타리를 치게 되면 진실의 손을 맞잡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임시방편의 도구로 삼지 말고, 오히려 부부가 진실의 손을 맞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만이 느끼는 결핍된 마음을 채우고자, 과한 무엇인가를 얻고자, 비난과 비판, 혹은 질책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다. 평생 갖고 싶었던 고가의 물건이 있을 때, 혹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적지 않은 재정을 지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당연히 최선은 배우자와 미리 소통하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무모하게 구매 해버리거나, 취미 생활을 위해 배우자 몰래 과도한 지출을 해버렸다면 누구나 거짓말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배우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지출이었지만 공격받고 싶지 않고,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는 잠시 거짓말로 회피하기보다 어렵지만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부부 사이에 더 바람직한 모습이 다(잠 11:1~15).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클래식으로 듣는 기독교

바흐, 그는 왜 음악의 아버지인가?



유성하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
대 피아노 석사)

사람들이 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까? 2021년 5월 네이버의 AI ‘하이퍼클로바’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질문을 했다. 하이퍼클로바는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굳건한 인상을 풍겨서 그렇게 불려왔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사실이 아니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인 이유는 그가 근대음악의 기초를 세운 개척자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있다면 음악개혁에는 바흐가 있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인 이유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이유는 바흐가 교회음악을 개혁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전 가톨릭교회는 교회음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즉 목소리만 허락했다. 그래서 아카펠라가 주를 이뤘다. 유일하게 허락된 악기가 있었는데 오르간이다. 그래서 합창, 오르간 솔로, 오르간이 합창을 반주하는 형태로만 교회음악이 수백 년 동안 작곡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린, 첼로, 팀파니, 피아노는 세속음악에만 썼고, 교회음악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면서 독실한 신자였던 바흐는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만

의 차별된 음악을 고민한다. 그는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형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위한 곡을 작곡했다. 당시 큰 규모의 합주가 없었기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후로는 가톨릭도 세속 악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오케스트라가 교회에서 연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근대 오케스트라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사실 4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드럼과 전자악기를 예배에서 사용해도 되느냐는 논쟁이 있다.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을 한국 교회에 처음 소개했다. 그래서 드럼 사용이 자유롭지만, 아직도 금지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도구가 아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1번’의 앞부분을 들어보자. 아카펠라만 부르던 시대에 북으로 시작하는 이 곡은 마치 현대의 드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음악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바흐가 음악 장르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요즘 가요로 이야기하면 발라드, 락, EDM, 힙합 등이 있듯이 바흐 또한 수많은 장르의 곡을 작곡했다. 특히 그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악기를 가지고 작곡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다. 첼로는 화음이 두음 이상 안 되는 특성 때문에 반주가 함께 해야 훨씬 풍성한 곡을 쓸 수 있는 악기다. 보통 피아노가 반주하거나 다른 현악기와 함께 연주한다. 그러나 바흐는 무반주로 작곡했다. 요즘 작곡가들에게도 현대적이며 충격적인 시도다. “화음 없이 선율 하나만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하는 곡이다. 단 한 곡이 아니라 6개 모음으로 36곡을 남겼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가 엄청난 규모의 곡이었다면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혼자 연주하는 최소주의(minimalism)의 정점이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를 들어보자.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작곡 기법을 개혁했기 때문이다. 바흐 당시에는 8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교회음악 작곡 방식이 있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음악을 탈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722년 장필리프 라모가 《화성론》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교회음악 작곡법에 종말을 선언했다. 요즘 말하는 Cmaj, Dsus, 장조, 단조 등이 모두 라모의 화성론에서 시작되었다.

옛날 교회음악과 라모가 말한 화성의 차이가 무엇일까? 첫째, 중세 사람들은 도에서부터 라까지 6개 음으로만 작곡했다. 7번째 음은

하나님의 숫자이기에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7번째 음 ‘시’도 다른 음과 같다고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둘째, 교회음악은 수평적인 음악이었다. 화음이 전혀 없고 멜로디만 존재했다. 인간은 겸손해야 하기에 하늘에 얼굴을 들고 일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옆드려 있는 작곡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라모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머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수직적인 화성으로 바꾸고 화음 음악이 시작되었다. 바흐가 라모의 논문을 접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800년 동안 같은 작곡법을 사용했으니 한계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작곡 방식에 약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교회음악 작곡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바흐는 두 가지를 합치는 방법을 고민하다 라모의 《화성론》과 같은 해인 1722년 작곡한 곡이 ‘평균율’이다. 이름 그대로 균등하게 음을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옛날 교회 시스템과 세속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소개했다. 그때부터 모든 클래식이 라모만이 아닌 바흐가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작곡한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를 바흐라고 부르는 것이다. 작곡 방법의 획을 그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 1권 1번 다장조’를 들어보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1번



평균율 클라비어곡
1권 1번 다장조

책과 영화로 배우는 ‘기도’

크리스천의 올바른 기도



〈개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황명환 저 | 두란노 |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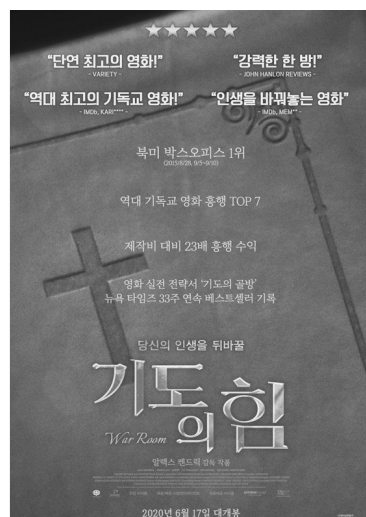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며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크리스천들의 새해 다짐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기도’다. 기도하는 한 해를 보내기로 다짐한다. 기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크리스천에게 기도가 중요하다.

크리스천만 기도할까?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무엇이든 붙잡고 나침의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 크리스천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크리스천의 올바른 기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다. 황명환 목사(수서교회 담임)의 신간 〈개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구약과 신약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로 싸워라!



‘기도의 힘(War Room)’
알렉스 켄드릭 감독 | 드라마 | 2020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적들을 이길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는 영화가 있다. ‘기도의 힘’이다. 영화 ‘기도의 힘’은 2015년 미국에서 제작한 기독교 영화다. 원제목은 ‘워룸(War Room)’이다. 전쟁의 방이라는 뜻의 제목처럼 기도가 곧 전쟁이고, 기도의 골방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전략임을 알려준다.

영화 줄거리는 이렇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엘리자베스’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새로운 고객으로 ‘클라라 부인’을 만난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도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 클라라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남편은 적이 아니다. 하나님과 남편에게서 당신을 갈라놓은 진짜 적은 사탄이다. 사탄과 기도로 싸우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소개한다. 엘리자베스는 클라라 부인의 조언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용서와 치유, 사랑이라는 기도의 힘을 배운다. 막막하고 어두운 인생 문제를 해결한 방법, 우리의 진짜 적인 사탄을 이길 방법인 기도의 힘을 배우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차세대 패션집회 'Follow The Way'

파워웨이브 학생 및 교사, 자원봉사자 730여 명 참석



지난 2월 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진행된 차세대 패션집회 'Follow The Way'

차세대 파워웨이브 패션집회 'Follow The Way' 열기가 뜨겁다. 지난 2월 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전 주대학교에서 서빙고온누리교회 패션집회가 이어졌다. 파워웨이브 학생 및 교사, 자원봉사자 등 730여 명이 참석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패션집회에서는 이서진 목사 'Oasis Jesus', 마크

조 선교사 '아버지의 마음', 서종현 선교사 '결정적 태도', 노희태 목사 '이제, 다시 시작'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특강도 있었다. 전지 대표 'Be Transformer', 정우성 연구원 '상품 VS 작품'을 주제로 강의했다.

심수정 학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

는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지 학생은 "하나님께서 빛나는 사명을 주셨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월 18일(토)부터 20일(월)까지는 양재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패션집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3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

차세대와 부모, 교사 1만4천여 명 참여

2023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를 한다. 차세대가 가족과 함께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읽고 쓰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프로그램이다. 2월 22일(수)부터 4월 8일(토)까지 진행된다. 올해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 본문은 누가복음이다. 차세대와 부모, 교사 1만4천여 명이 참여한다.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 노트'는 2월 19일(주일)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근린공원 풋살장, 양재온누리교회 온유홀, 도곡교육관 1층 카페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캠퍼스는 정해진 장소에서 받으면 된다.

2023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에서 저학년(예썸)은 매일 성경 한절 따라 쓰기, 본문 그림 색칠하기 등을 하고, 고학년(썸팡, 파워웨이브)은 매일 정해진 분량의 본문을 쓰고, 감사제목을 적는다.

/ 홍하영 기자

기독교 OTT '퐁당' 회원 11만 명 돌파

2만8천여 콘텐츠 한국 교회에 제공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퐁당(Fondant)' 가입자가 11만 명을 돌파했다. 기독교 OTT '퐁당'에서는 2만8천여 편의 콘텐츠를 한국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

말씀암송퀴즈쇼 <바이블킹>,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더 워크(퐁당 오리지널)> 등의 인기 콘텐츠를 배출했다.

오는 5월에는 '퐁당 미디어 콘퍼런스'를 개최해서 한국 교회에 미

디어 사역 전략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CGNTV에서는 기독교 OTT '퐁당' 론칭 2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한다.

3월 1일(수)까지 기독교 OTT '퐁당' 콘텐츠 추천 글을 작성해서 구글 폼 양식에 제출하면 된다. 고급 헤드셋, 치킨·커피 기프티콘 등 풍성한 선물을 증정한다.

/ 김영선 기자



양재 주차사역팀 봉사자 모집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서 주차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시간은 일요일예배 1~4부 사이(시간 조율 가능)다. 봉사 장소는 양재온누리교회 지하 주차장, 일동제약, 교회 주변이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3811-6252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성경의 실제 역사와 지형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는 '성서지리(신약판) 17기'가 3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성서지리 박사 이문범 목사(사랑누리교회, 총신대 겸임교수)가 '로마 시대와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기간', '예루살렘 사역', '사도행전 전도여행', '요한계시록 7교회'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6만 원. 3월 1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면 된다.

문의: 02-2078-3275

온누리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콜센터 전용전화, 전도학교, 전도인의 밤

전도콜센터(전도사역본부)에서 전용전화를 개통했다. 전화번호는 02-3215-3377이다. 긴급 전도 문의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콜센터 전용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전도콜센터 사역자들이 대신 전도해준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온누리전도학교 참가자도 모집한다. 서빙고, 양재, 부천온누리교회에서 3월 19일부터 10주 동안 과정이 이어진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 홍보관, 부천온누리교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양재온누리교회 조별 일정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한다. 전도학교 비전, 기본전문, 스토리텔링, 전도 시연, 반대질문에 대한 대답,

상황별 접촉점 등을 주제로 장경문 장로(양천공동체, 온누리전도학교)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타 교회 성도는 문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이름, 전화번호, 소속교회, 교재 발송용 주소)를 보내면 된다.

오는 3월 6일(월)에는 온누리교회 전도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도인의 밤' 행사가 열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다. 전도콜센터, 전도학교, 전도폭발 사역자, 각 공동체 전도사역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도학교: 서빙고 010-6354-7813

양재 010-9001-6243

부천 010-7705-0309

전도본부: 02-3215-3214

기쁨의 샘 참가자 모집

3월 9일부터 매주 목 오후 7시 50분

주제별 회복학교 '기쁨의 샘'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2월 2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기쁨의 샘은 심리치료의 유익과 한계,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연구 보

완해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반복적 우울감, 중독, 정서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대상이다. '일반 심리치료와 성경적 치유 검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10-5150-0556

2023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3년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한다. 3월 21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2층)에서 추천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 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할 수 있다. 예약금 100만 원(당일 이체 불가, 현금으로 준비)과 예비 신랑, 신부의 교인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첨하고, 순번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정한다.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결혼예배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3월 11일부터 매주 토 오전 10시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2-2182-9110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집트-요르단' 편은 4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진행된다. '출애굽 여정'을 주제로 성경을 배우고, '이집트 역사와 페트라 왕국 역사'를 주제로 인문학을 공부한다.

'그리스-산토리니' 편은 5월 1일(월)부터 7일(일)까지 일정이다.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을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의 역사, 신학, 철학'을 주제로 인문학을 배운다.

문의: 010-4902-1022

■ 해피맘 수료 간증



좋은 아내, 행복한 엄마

/ 수취우편 성도(Kota Kinabalu Baptist Church)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수료하고 더 건강한 여성, 아내, 엄마가 되고 싶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아시고 해피맘(두란노어머니학교 심화 프로그램) 과정을 알게 해주셨다.

해피맘 과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어떻게 배우자를 돕고 격려하고,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남편과 하나되는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순종하는 법, 관용과 지혜로 남편을 대하는 방법도 배웠다.

해피맘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는 남편과 관계가 매우 나빴다. 하루에 세 마디도 하지 않았다. 세 마디 이상하면 싸움이 되기에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집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적인 만족도 얻지 못해서 자주 외출했다. 외도도 했다. 나는 남편을 더욱 미워하고, 무시했고, 불평했다.

딸이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음이 아팠다. 딸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몰랐다. 나 자신에게 취해서 내가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손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어린 시절

을 파괴하고 있었다.

해피맘 과정을 수료하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다.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려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내가 가장이 구원받는 것을 알았다. 내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먼저 나부터 완전히 변하기로 했다. 지금은 남편과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매일 웃으며 포옹하고 있다. 남편과의 신체 접촉도 정상화되었다. 어느 날 남편과 딸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딸이 철이 든 이후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에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내가 많이 변하면서 남편의 외출도 줄어들고 연애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딸이 “엄마가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화를 내지 않고 즐거워 보이고 매사에 긍정적이에요”라고 말해주었다. 딸들의 기분도 점차 좋아지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좋은 아내와 행복한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해피맘에 감사하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동영 성도(여호수아청년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믿고 싶어서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신청했다. 양육자 김기덕 집사님의 기도와 양육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다. 양육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었다. 점점 교회 나가는 것을 빠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세상의 가치를 좇을수록 내 삶은 무너지고 무기력해졌다.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갈급함을 부여 주셨다.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하나님은 내게 공동체 활동과 순예배,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서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 일대일제자양육도 동역자의 추천으로 신청했다.

일대일제자양육 초반까지만 해도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고 믿고 싶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들어

“믿고 싶다”에서
“믿는다”로!

서 당연하게 넘어갔던 성경 이야기들이 새롭게 들렸다.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내 삶이 조금씩 성경 말씀과 기도, 예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믿고 싶다’는 간절함에서 ‘믿는다’는 확신이 생겼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내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은 예수님을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아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다. 어린이 사역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를 미워하는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도 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일대일제자양육에서 배운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열과 성으로 양육해주신 양육자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임선아 선교사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즈음이다.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신앙이 성장했다.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에는 하와이 코나에서 YMAM(예수전도단) DTS(제자훈련학교)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스태프로 섬겼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깨달았다. 선교사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고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그 뒤로 영어예배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파트전도사로 10년 넘게 사역하다가 2015년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인천온누리교회에서 6년 동안 한국어예배 어린이들에게 말씀도 전했다. 이 모든 기간이 내가 선교에 조금씩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지난해 초 드디어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TIM(두란노해외선교회)과 온누리교회에서 장기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일상에서 전도를 꾸준히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을 받았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말씀과 기도, 지혜를 모아 제작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

일상 전도!

로 배울 수 있었다. 평소 궁금했던 상황별 접촉점과 반대 질문에 대응하는 팁도 얻을 수 있었다. <최고의 행복> 책자가 이미 20개 외국어로 번역되어 선교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장경문 장로님을 비롯한 리더들과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해서 삶과 직장, 거리에서 전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과 감동이 있었다.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을 마치고 일상에서 내 나름대로 전도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선교사 훈련 때부터 시작한 외국인 대상 공향전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지하철 전도 등을 하면서 꾸준히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혼자 전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전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됐다. 가족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겨졌다. 친척들 연락처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복음 전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일상 전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전도 여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면 놀랍고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는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선만 성도(과천의왕공동체)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하나의 교훈이나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실재와 현실이 됐다. 마땅히 말씀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양육자님이 나눠 주신 직장생활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남았다. 무엇보다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하는 접대와 줄서기 앞에서의 갈등과 고민을 할 필요조차 없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인상 깊었다.

사회의 요구와 다른 길을 선택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큰 은혜였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는 고백이 지금도 선명하다.

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생활 할 때 느끼던 돈에 대한 욕구와 불만이 더 강하게 와닿았다. 일감의 양과 직원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본다. 일감이 많으면 다

마땅히 말씀처럼 살기를

행이다 싶다가도 수입이 잘 되겠나 걱정을 했다. 일감이 줄어들면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불안해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나는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저의 삶과 제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와 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할수록 그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상태를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하늘나라를 향하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칼럼

월요어노인팅예배 창립 15주년



김성진 장로
(월요어노인팅예배)

15년 전 하용조 목사님께서 내게 “월요일에 예배 인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사십 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육십 대가 됐습니다. 약 15년 전 어느 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의 안수 권위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시며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를 위해 기도했다. 내 기도에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내심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또 어느 날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똑같이 장로들의 안수 권위를 위해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날은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내게 월요예배를 인도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월요치유 집회, 월요치유와 권능 집회를 거쳐 지금의 월요어노인팅예배가 이어지고 있다. 창립 15주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월요어노인팅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요 14:12).

월요어노인팅예배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와 치유의 은혜가 있는 예배다. 신

앙생활을 여행에 비유하면 월요어노인팅예배는 휴게소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쉬어가는 곳이다. 계속 오거나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신앙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말문이 막혔던 성도의 말문이 트이고, 병원에서 가망이 없었던 환자들이 회복을 경험했다.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성도님들이 나와 스테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감사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치유는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월요어노인팅예배 창립 15주년을 맞아 해외 아웃리치를 다시 시작한다.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네팔 서부 건짜뵐과 동부 울라바라라는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건짜뵐에서는 3일간 3,50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동부 울라바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두 지역은 네팔에서도 손꼽히는 가난한 지역이기에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하게도 월요어노인팅예배에서 은혜받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한 해에 다섯 차례 정도 해외 아웃리치를 다녔다. 한 번도 비용이 부족해서 소화하지 못한 적이 없다. 은혜 부어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와 물질은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이번 네팔 아웃리치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더불어 올해는 국내 교회와 대학청년들과 월요어노인팅예배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 발걸음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한다.

권사칼럼

하나님께 플러그인(plugin)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새해가 밝은지 벌써 두 달이 흐르고 있다. 모두 같은 날인데 새해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지 모르겠다. 나는 새해 첫날에 늘 사워하고 집을 청소하며 마음을 정리한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정성스레 떡국을 준비한다. 멀리 우려낸 국물에 사과 껍질을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든다. 그 국물에 떡을 넣어 끓이면 입에 감기는 감칠맛이 특별하다. 육수가 끓어서 떡이 뜨면 만두 몇 개를 곁들여 한소금 더 끓이고 대접에 담는다. 갇은 양념을 넣어 냄비에 자작하게 익힌 다진 소고기와 계란 지단을 고명으로 얹는다. 그 위에 구운 김을 부셔서 넣고 후추와 통깨를 뿌려 놓으면 모양도 그럴듯하고, 어쩔 그리 맛난지 모른다. 옛날부터 세시 음식으로 설날에는 ‘병탕’이라는 이름으로 떡국을 끓여 먹었다. 모든 것을 잊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염원과 무병장수의 의미를 담아 흰 가래떡을 길게 뽑았다. 부자 되라는 뜻에서 동전 모양으로 떡을 썰어 떡국을 끓였다. 새해를 향한 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떡국을 앞에 놓고 새해 각오를 다져보았다.

지난달 코엑스에서 열린 명절 선물 전시회에서 물 없이 하는 족욕기를 구매했다. 전기에 매트를 연결해서 실내화처럼 생긴 털신 주머니에 발을 넣어 신고 있으면 온열로 족욕이 된다. 발이 따뜻하니까 온몸의 혈액 순환이 잘 된다. 더운물 받는 수고가 없어 간편하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전기 제품은 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쓸 수 있다. 아직도 멀쩡하게 쓸 수 있는 혈압기

가 전기 코드가 없어서 무용지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플러그인(plugin)’되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관심사와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반경과 생활 양식도 달라진다. 올해는 어디에 나를 플러그인시켜야 할까? 에너지 원천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 플러그가 단단히 접속되어 있는지 점검해볼 일이다.

새해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싶다. 성경 읽기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 중에서 감사했던 일을 기록하는 ‘감사노트’와 ‘감사나눔봉투’를 만들자. 감사한 일마다 일정액을 감사나눔봉투에 넣어 저축하면 목돈이 될 것이다. 필요한 나눔을 감사나눔봉투에서 꺼내 활용한다면 이웃의 필요에 주머니를 여는 일이 훨씬 쉽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생활습관으로 자리잡아 나눔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더불어 나의 삶도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 하모니카, 캘리그래피, 남송, 수필 공부를 계속하려 한다. 시간이 된다면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컴퓨터 동영상 제작에 관한 실무를 배워보고 싶다. 영어도 게을리하지 않고 매체를 통해 배움을 이어가려 한다. 틈틈이 국내 여행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해봐야겠다.

따스한 인간관계를 맺어 가도록 주변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살자. 글 쓰는 일에도 성실을 다하자. 주변 정리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 나와 가족들의 건강과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외손녀의 학업 정진을 위한 기도제목들을 덧붙인다.

아직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긍정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 활기를 불어넣는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찬 출발을 한다. 벽찬기대로 설렌다. 몸과 마음이 상쾌하다.

신앙에세이



민군홍 전도사
(양재 차세대)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다. 내 고향 역시 이와 같은 시골이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어릴 적 마을 풍경이 눈에 선하다. 가을 낮은 산 중턱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본다. 눈에는 황금빛 벼가 넘실대고, 그 뒤로는 기차가 소리 내며 지나간다. 기차길 뒤로 작은 강이 유유히 흐른다. 이따금 동네에서 키우는 소나 개가 추임새를 넣기도 하는 동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풍경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점차 이 모습을 보기 힘들어질 수 있

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식물들의 분포가 변화되고 있다.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함께 얼어 있던 탄소가 배출되며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해양오염도 정말 심각하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들이 태평양 한쪽에 모여 거대한 섬을 형성했는데 대한민국 면적의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육지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쓰레기를 매립할 곳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쓰레기를 보내기도 한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 오염도 심각하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인간보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환경오염에 인간의 역할이 컸음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다시 알 수 있었다. 코

우리는 청지기!

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서울에서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바다에서 배가 움직이지 않자 해양소음으로 힘들어했던 해양 동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활동을 잠시 멈추었을 뿐인데, 자연 스스로 회복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환경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외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외면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창 1:28).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관리할 청지기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

한다. 청지기는 관리자이다.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다. 우리는 맡아서 관리할 책임을 부여 받았을 뿐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다(창 1:31). 그런데 지금의 지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가솔 의무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실천한다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온누리교회에 참 좋은 점 중 하나는 사순절에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는 점이다. 말로만 자연보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좋다. 나도 이번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방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CMN 서울역노숙인 진료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스태프 모임 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모집: 환영 및 안내, 대교, 영상촬영 및 편집, SNS 관리, 예배 및 행사 기획, 카이어 문의: 02-3215-3177 두란노아버지학교 2023 리더십컨퍼런스 주제: 신나게 아버지학교합시다! 일시: 2월 25일(토) 오전 10시 장소: 대구부광교회(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38) 일정: 신년예배와 2023년 비전 공유, 리더십교육_영적 돌봄의 리더십(강사: 오원웅 박사) 문의: 사무국(02-2182-9100)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임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고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음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음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감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아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료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한국어선교학교 개강 대상: 국내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기 원하는 분 일시: 3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10주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라인 줌 신청: 아이케어 문의: 장성수 팀장(010-6652-3596)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위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중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중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중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중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중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김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바죽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강좌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친
정재옥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수원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청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하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평로면 만리산길 613
★ 신재울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재울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국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3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alia
• 오克兰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hisins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히라타미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나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이치오
요시히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3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니고야
정호석 목사 81-52-5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 | | | |
|-----------|-----|-----|-----|
| ◆캐퍼스 담당목사 | | | |
| 김석수 | 강부호 | 정재식 | 김승훈 |
| 박승수 | 이기복 | 신동식 | 김승수 |
| 이준호 | 박철웅 | | |
| ◆부목사(전임) | | | |
| 김두홍 | 강은수 | 강지영 | 고범식 |
| 권오환 | 권용갑 | 김혜영 | 김동윤 |
| 김미경 | 김순재 | 김승호 | 김동홍 |
| 김성겸 | 김영식 | 김영배 | 김요성 |
| 김성민 | 김윤식 | 김재식 | 김재송 |
| 김정희 | 김종진 | 김지현 | 김종호 |
| 김창호 | 김철하 | 김대용 | 김태완 |
| 김낙훈 | 김현식 | 김태우 | 노규식 |
| 고지형 | 고대환 | 도옥환 | 염문봉 |
| 문영재 | 박근배 | 박성A | 박성B |
| 박상진 | 박정우 | 박형준 | 배맹상 |
| 배성우 | 배진국 | 변대식 | 서경남 |

- | | | | | |
|----------|-----|-----|------|--|
| 하스데반 | | | | |
| ◆협동목사 | | | | |
| 김도일 | 류도세 | 방선기 | 이기복 | |
| 한정국 | | | | |
| ◆부목사(파트) | | | | |
| 가 나 | 강종도 | 김래위 | 김바울 | |
| 김병식 | 김병철 | 김용산 | 김은하 | |
| 김진숙 | 김종영 | 김대주 | 김혜경 | |
| 네트루 | 뉴이엔 | 한복중 | 마주마 | |
| 박씨파 | 백승현 | 비 킵 | 서영철 | |
| 성구미 | 시각 | 에리카 | 리슬로즈 | |
| 윌리엄 | 이민영 | 이진이 | 이진희 | |
| 유미연 | 제민영 | 차재미 | 최정진 | |

- ### ◆전도사(파트)

- | | | | |
|-----|-----|-----|-----|
| 김연 | 강가희 | 송민아 | 전대경 |
| 권애리 | 김기호 | 김다미 | 홍동규 |
| 김복선 | 김박혜 | 김사라 | 김영신 |
| 김예찬 | 김지현 | 김의연 | 김종균 |
| 김주영 | 김유자 | 김지선 | 김지혜 |
| 김진희 | 김태현 | 김이정 | 김희빛 |
| 김현정 | 남 혜 | 민해은 | 박기애 |
| 박세연 | 박 성 | 박성배 | 박성원 |
| 박석훈 | 박재미 | 박여울 | 박하늬 |
| 박의락 | 박수빈 | 방민서 | 맹병주 |
| 백성주 | 서연정 | 송유진 | 송선애 |
| 신기한 | 신채비 | 신우승 | 신성범 |
| 안예향 | 안두래 | 양원호 | 염덕순 |
| 오국현 | 오성광 | 오성민 | 우승민 |
| 유진실 | 유석원 | 유윤우 | 유현우 |
| 유효동 | 육석부 | 윤종연 | 윤혜 |
| 이나란 | 이도열 | 이명희 | 이민규 |
| 이상은 | 이소라 | 이요한 | 이치환 |
| 이다코 | 이랴드 | 이수화 | 이진수 |
| 이정빈 | 이준수 | 이지영 | 이태호 |
| 이 한 | 임영호 | 이형중 | 이휘영 |
| 임경미 | 임도완 | 임동원 | 임진성 |
| 임정민 | 장건우 | 장광식 | 장영주 |
| 정영언 | 정기는 | 정광성 | 정성민 |
| 정효원 | 정주영 | 정희애 | 제명진 |
| 조민희 | 조슬기 | 조은희 | 조준기 |
| 지수정 | 조승환 | 조운휘 | 전성희 |
| 진우석 | 최귀중 | 최민정 | 최병훈 |
| 최정은 | 최혜정 | 한용태 | 허영은 |
| 홍근영 | 홍혜나 | 홍솔기 | 황승남 |
| 황인성 | 황유일 | | |

- | | | | |
|-----|-----|-----|----|
| 김기동 | 김광선 | 김기호 | 김기 |
| 김석인 | 김명중 | 김정철 | 김성 |
| 김성수 | 김선래 | 김택 | 김성 |
| 김순수 | 김상인 | 광수 | 김성 |
| 김용성 | 김승 | 김영수 | 김성 |
| 김원표 | 김웅 | 김배 | 김원 |
| 김이 | 김원중 | 김철 | 김의 |
| 김종근 | 김인하 | 김정철 | 김지 |
| 김진국 | 김종성 | 김종 | 김지 |
| 김하중 | 김창옥 | 김철수 | 나성 |
| 노재한 | 김현철 | 김형식 | 나성 |
| 문창국 | 노흥국 | 류지영 | 문성 |
| 문영남 | 문창호 | 문충실 | 문성 |
| 박상근 | 박공 | 박병 | 박성 |
| 박영태 | 박석문 | 박성근 | 박성 |
| 박태성 | 박용국 | 박중현 | 박성 |
| 백옥 | 백문 | 백인 | 백성 |
| 서진봉 | 배홍기 | 성병선 | 서성 |
| 송산석 | 서건 | 성창철 | 송성 |
| 송임철 | 송영범 | 송태동 | 송우 |
| 심재국 | 송재길 | 송창도 | 심우 |
| 신성익 | 신우권 | 신현호 | 심성 |
| 안성영 | 신창구 | 심준보 | 안성 |
| 양우성 | 안태대 | 안종인 | 안성 |
| 양우성 | 양주현 | 안재수 | 양성 |
| 유병훈 | 유광방 | 원우현 | 유성 |
| 윤기홍 | 유완영 | 유재천 | 유성 |
| 윤영오 | 윤성열 | 유의준 | 윤성 |
| 이건재 | 윤현덕 | 유흥환 | 이성 |
| 이국주 | 이경찬 | 이관수 | 이성 |
| 이국식 | 이남수 | 이동희 | 이득 |
| 이상옥 | 이무용 | 이병현 | 이상 |
| 이성경 | 이영걸 | 이영세 | 이성 |
| 이재호 | 이용하 | 이우근 | 이성 |
| 이한열 | 이제경 | 이재규 | 이성 |
| 장광 | 이종수 | 이창남 | 이성 |
| 전장하 | 이현호 | 이화영 | 이성 |
| 정문규 | 장양호 | 장영준 | 전성 |
| 정영열 | 정강무 | 정대서 | 정성 |
| 정학영 | 정병교 | 정보원 | 정성 |
| 정수환 | 정용호 | 정재택 | 정성 |
| 조한진 | 정희태 | 조규상 | 조성 |
| 차승철 | 정하진 | 정파용 | 조성 |
| 최도성 | 조희동 | 주수일 | 조성 |
| 최진성 | 차준구 | 차준한 | 최성 |
| 최희영 | 최득근 | 최명 | 최성 |
| 한동식 | 최창규 | 최창수 | 최성 |
| 한희성 | 한갑수 | 한갑수 | 한성 |
| 한홍식 | 한백진 | 한영희 | 한성 |
| 홍종일 | 한광식 | 한선호 | 홍성 |
| 홍종일 | 홍기경 | 홍도표 | 홍성 |

- | | | | |
|------|------|------|-----|
| 홍종철 | 홍정표 | 황영옥 | 황용오 |
| 황희서 | 황재규 | | |
| ◆시무료 | | | |
| 강경국 | 강동수 | 강부순 | 강상훈 |
| 강은철 | 강은철 | 강장재 | 강태숙 |
| 고미라 | 고영주 | 곽병철 | 곽진성 |
| 곽희준 | 권순환 | 권오섭 | 권오현 |
| 금세득 | 김경동 | 김경학 | 김광하 |
| 김광훈 | 김기섭 | 김기영 | 김도영 |
| 김동연 | 김두진 | 김민순 | 김명세 |
| 김병현 | 김병훈 | 김문갑 | 김민찬 |
| 김병호 | 김병옥 | 김진갑 | 김상철 |
| 김선호 | 김성규 | 김성종 | 김성진 |
| 김성철 | 김성훈 | 김성원 | 김영광 |
| 김영순 | 김영옥 | 김영옥 | 김영환 |
| 김영현A | 김영현B | 김영현C | 김이준 |
| 김용호 | 김우영 | 김 원 | 김이중 |
| 김진성 | 김자옥 | 김재일 | 김정민 |
| 김정훈 | 김종완 | 김종호 | 김준규 |
| 김준영 | 김준서 | 김준호 | 김지현 |
| 김지홍 | 김찬석 | 김철민 | 김철주 |
| 김해기 | 김현수 | 김현걸 | 김형준 |
| 김형중 | 김화선 | 김효수 | 김요구 |
| 김희준 | 나광옥 | 나 영 | 나영옥 |
| 남명현 | 남상진 | 남상옥 | 남윤창 |
| 남정진 | 남지현 | 노기홍 | 노하수 |
| 라성원 | 류기범 | 명영찬 | 문보찬 |
| 문영기 | 민무기 | 박구병 | 박군명 |
| 박대호 | 박덕현 | 박동현 | 박두원 |
| 박명규 | 박명복 | 박성기 | 박수길 |
| 박승오 | 박영국 | 박영태 | 박영환 |
| 박수형 | 박일구 | 박일만 | 박일환 |
| 박재두 | 박종현 | 박지수 | 박지완 |
| 박해한 | 박현구 | 박형민 | 박홍균 |
| 박홍선 | 반찬중 | 배기영 | 배소호 |
| 배종진 | 배종옥 | 서대림 | 서명수 |
| 서병화 | 서성현 | 성광호 | 성주명 |
| 손기철 | 손재호 | 손태웅 | 송동성 |
| 송중환 | 송호철 | 신동기 | 신두환 |
| 신민호 | 신 섭 | 신철우 | 신하철 |
| 신현호 | 심갑섭 | 심효부 | 심희돈 |
| 안동현 | 안성현 | 양상식 | 양 용 |
| 양준홍 | 양준경 | 양홍식 | 오 명 |
| 오범규 | 오내훈 | 오석훈 | 오정락 |
| 오이식 | 유대훈 | 우승근 | 원종호 |
| 유봉국 | 유재훈 | 윤석우 | 윤석주 |
| 윤수진 | 윤영자 | 이경호 | 이경훈 |
| 이광순 | 이규진 | 이기중 | 이길순 |
| 이남식 | 이동욱 | 이백용 | 이병국 |
| 이봉의 | 이상도 | 이성일 | 이성준 |
| 이석일 | 이상환 | 이승배 | 이영호 |

- | | | | |
|--------------|-----|-----|-----|
| 이영복 | 이영찬 | 이우경 | 이은일 |
| 이영진 | 이재광 | 이재춘 | 이정구 |
| 이인중 | 이종길 | 이중우 | 이종철 |
| 이진택 | 이태열 | 이태환 | 이학일 |
| 이해남 | 이태현 | 이홍선 | 임 훈 |
| 임광순 | 임병주 | 임상범 | 임정영 |
| 임현태 | 임호열 | 임희창 | 장경문 |
| 장성식 | 장정열 | 장규환 | 장문성 |
| 장성철 | 장정일 | 장연수 | 전찬배 |
| 장광열 | 장명호 | 장사기 | 정영원 |
| 정영기 | 정영주 | 정영태 | 정영환 |
| 정성진 | 정운우 | 정원만 | 정응호 |
| 정일영 | 정제배 | 정진호 | 정태경 |
| 조서수 | 조대식 | 조대호 | 조병환 |
| 조성수 | 조성현 | 조성환 | 조진호 |
| 조청구 | 주재량 | 진중구 | 최민철 |
| 최봉태 | 최승관 | 최석민 | 최성남 |
| 최용재 | 최창근 | 최현우 | 최현재 |
| 최형수 | 최호진 | 하두원 | 한복규 |
| 한광수 | 한광식 | 한창경 | 한홍희 |
| 한필구 | 한필성 | 한철철 | 홍경호 |
| 하필수 | 하복만 | 하영남 | 허영환 |
| 홍기수 | 홍갑진 | 홍성호 | 홍의택 |
| 홍훈성 | 홍혜남 | 황병원 | 황상윤 |
| 황성룡 | 황윤일 | | |
| ◆강제성로 | | | |
| 김영재 | 박득순 | 박찬진 | 이승규 |
| 이용만 | 이원로 | 이희상 | 장옥룡 |
| 정재택 | 정병주 | 정상진 | 지상환 |
| 채수진 | 최창걸 | 황은우 | |
| ◆협동성로 | | | |
| 강남동 | 김갑선 | 김정훈 | 김 준 |
| 남양동 | 류승근 | 배도환 | 박자민 |
| 박형규 | 양호성 | 우상근 | 이경희 |
| 정지성 | 주지수 | 최태화 | 최원호 |
| 최종호 | 주교범 | 함지연 | 황재익 |
| ◆성가사 | | | |
| 강내우 | 강순영 | 강중현 | 강혜영 |
| 강기탁 | 강건주 | 강병우 | 강병오 |
| 강신아 | 강세일 | 김은정 | 김경진 |
| 강현창 | 강지철 | 김혜경 | 김형준 |
| 김희철 | 남윤창 | 문보람 | 박은혜 |
| 박용규 | 박정규 | 손창우 | 송정호 |
| 신수진 | 신준환 | 오승현 | 오지훈 |
| 유선애 | 유은희 | 유지현 | 이미선 |
| 이민호 | 이명근 | 이수정 | 이성민 |
| 이세미 | 이수연 | 임진숙 | 조익현 |
| 전병문 | 전지영 | 정성미 | 채미희 |
| 최경열 | 최영은 | 최은식 | 최지선 |
| 최희진 | 최재태 | 최혜경 | 최훈호 |

- | ◆반주자 | | | |
|------|-----|-----|-----|
| 강영우 | 강영은 | 강예은 | 고은찬 |
| 김강리 | 김기아 | 김병성 | 김보라 |
| 김보름 | 김진해 | 김성태 | 김수현 |
| 김영찬 | 김은실 | 김영은 | 김은지 |
| 김진영 | 김정국 | 김지은 | 김지훈 |
| 김민서 | 김찬희 | 김현정 | 김형주 |
| 김효찬 | 남궁진 | 남미유 | 나태셀 |
| 노성희 | 노소라 | 문예지 | 문희정 |
| 박신희 | 박지은 | 박요셉 | 박유진 |
| 박지훈 | 박주영 | 배영근 | 송호빈 |
| 신선로 | 신은재 | 심병근 | 안소라 |
| 안영연 | 안진현 | 안호진 | 안희준 |
| 오주영 | 유주희 | 왕희준 | 유은하 |
| 유재경 | 유정우 | 유지혜 | 윤정희 |
| 윤준서 | 윤진영 | 이내리 | 이준 |
| 이강식 | 이슬기 | 이애리 | 이예나 |
| 이예은 | 이지원 | 이지혜 | 이혜진 |
| 임현우 | 장재우 | 장현호 | 정결미 |
| 정다혜 | 정우찬 | 정주호 | 정지은 |
| 정진우 | 조민지 | 조영태 | 천은진 |
| 최영근 | 최은미 | 최지훈 | 홍서영 |
| 황지영 | | | |

해외 온누리교회 ●

- ◆ **담당목사**
 권영환 김재균 김철진 박신용
 박대영 김재범 송태호 유현복
 이길탁 이인옥 이영선 요시하루
 신부원 전현규 정경숙 니시아
 만수이 하카타마 미키 후쿠치와 마키노
- ◆ **미주OMA담당목사**
 김형철 마크조 심상현 이성광
 이종업 이종재 정장철
- ◆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병삼
 김상훈 김민수 김성영 김성진
 김경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심 손 대현
 손미경 신기원 심세현 심형찬
 양진범 염영기 우영삼 유명준
 양준환 이경호 미우라 이성연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경주
 이현호 장지석 장재웅 전상훈
 정권철 정동윤 정용환 조수창
 조종호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황세남 홍 정 Joel Kim Jo
- Lee Michael Lee

- ◆전도사
김영안 강성효 강은주
김연호 김연봉 김경주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국
박지혜 사재호 실신재 송민선
안대진 안지연 이만호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재호 장유미 장전선 장준호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록 코바야시 매구
쿠보타지 하정훈 하원희 호산하
황나현 한소은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Par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지훈 권득수 김경택 김수광
김희호 김원준 남 영 백남인
서인태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식
- ◆시무장로
강성규 고철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주영 남영근
박호택 성현제 손재대 신술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성현 이승민 이은창 이종삼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희 조과라 노리하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라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용식 엄성국 한복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진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관 최태화 최승소 최태영
주교명
-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최겨결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지경 엄지영 여훈필 엄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춘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원철 황애남 황진주

결혼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김문식, 김시안의 아들 김성엽(온누리교회)
이광옥, 최선희(온누리교회 집사, 권사)의 딸
이예은(온누리교회)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백대원, 고선옥(온누리교회 안수집사, 권사) 아들
백승윤(크로스웨이미션교회)
이삼연, 한혜윤(충현교회 안수집사, 집사)의 딸
이유진(새문안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유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권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재정

심일주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김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태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 여섯 자리(김포보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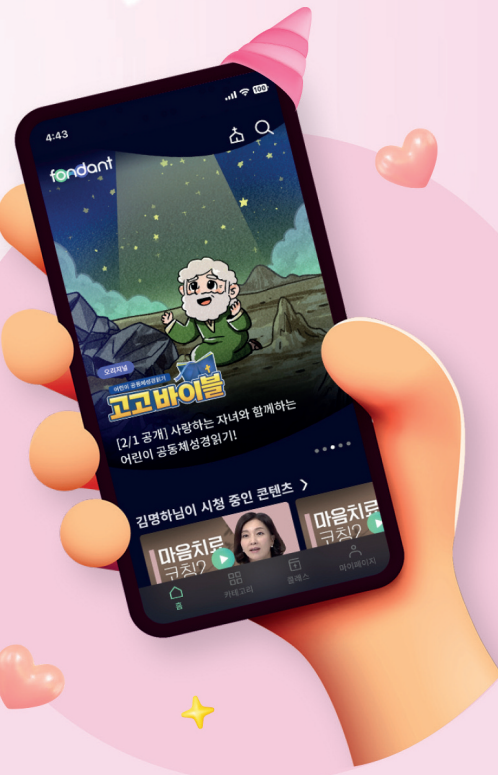
서빙고 은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하·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이혼,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거피습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베품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3분, 3분-11시 30분
 세습 상담: 둘째주 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2/19(목) 분당A 이해경 성도 모친상 고 김옥희
2/10(금) 강서 임노아 집사 모친상 고 김맹자
2/10(금) 이촌 이윤진 성도 부친상, 이준우 성도 빙부상
고 이신상
2/11(토) 고양은평 이의용 성도 부친상 고 이병기
2/11(토) 도곡 유승관 집사 부친상 고 유계종
2/11(토) 여호수아 임태준 성도 부친상 고 홍성완
2/12(주일) 푸른누리 조영성 성도 부친상 고 조상현
2/12(주일) Bridge33 김형균 성도 부친상 고 김용재
2/12(주일) 중종로 김현식 집사 모친상 고 박순매
2/12(주일) 일산파주 김미경 성도 모친상 고 김은숙
2/13(월) 양재B 조복순 성도 모친상 고 김춘화
2/14(화) Point5 이상규 성도 모친상 고 이윤직
2/14(화) 강남A 김진희 성도 시부상 고 신신열
2/14(화) 서초A 한정홍 성도 부친상 고 한영우
2/14(화) 양재B 이미선 성도 모친상 고 주선규
2/15(수) Bridge33 석우석 성도 부친상 고 석진호
2/15(수) 마포 서수영 성도 모친상 고 최영화
2/15(수) 가정사역 김석영 집사 모친상, 박은아 권사
시모상 고 이영제
2/16(목) 일산파주 김태원 성도 부친상 고 김관후
2/17(금) 일반인운누리교회 김재동 장도 모친상
고 김차숙

퐁당 2주년 2벤트



여러분의 '퐁당' 콘텐츠를 추천해 주세요!



평소 애정을 가지고 시청하신 퐁당 콘텐츠를 재미있게 소개해 주세요!
장르 불문! 50자 이상! 추천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2벤트기간 ★

2월 15일(수) ~ 3월 1일(수)

★ 참여 방법 ★

'퐁당' 앱 또는 CGNTV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당첨자발표 ★

3월 6일(월)



퐁당 다운로드



이벤트 바로가기

★★★★ 주의! ★★★★★

이벤트 응모시 개인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퐁당'의 2주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은혜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퐁당' 시청방법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다운로드



스마트TV로 시청하기
LG, 삼성 스토어에서
'퐁당' 검색 후 설치



PC로 시청하기
www.fondant.kr